

품질 높이고... 작업시간 줄이고...

멜론 수경재배 기술 '주목'

농진청, "1m 배지에 모종 3포기가 적당"

가볍게 엮는 방식 사용시 인건비 절약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품질은 높이고 작업시간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멜론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토양 전염성 병해충과 연작(이어지기) 장애 해결을 위해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간편하고 물·양분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경재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코코넛 열매 껍질을 가공한 코이어 배지에서 멜론의 수경재배 가능성을 확인한데 이어 올해는 품질은 높이면서도 경

제적인 배지 규격과 이주심기 방법을 연구했다.

실험 결과, 배지 규격은 90cm(10L)와 100cm(20L) 가운데 100cm 규격을 사용하는 것이 품질과 상품성 면에서 유리했다. 심는 간격은 100cm 규격 배지에서 33.3cm 간격, 즉 배지 1개당 멜론 모종 3포기를 심는 것이 5포기(20cm 간격)를 심는 것보다 당도는 0.2~0.8% 정도 높고, 과일 무게는 300~560g 정도 커서 10아르당 조수입이 품종에 따라 185만~646만 원

까지 차이가 났다.

멜론을 코이어 배지에 이주시킬 때는 뿌리 부분을 배지 속에 묻지 않고 배지 위에 가볍게 얹어 준 뒤, 점적용 핀으로 고정하면 생산량과 품질 차이 없이 작업 시간을 42.6% 줄일 수 있다.

토양에 이주심기는 구덩이를 파고 뿌리를 심은 후 흙으로 덮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배지는 입자가 굵고 고르지 않아 토양에 심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심으면 모종 심는 시간이 길고 파묻는 동안 배지 일부가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볍게 엮는 방식을 사용하면 생산량이나 품질 차이 없이 이주심기 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1헥타르당 약 23만6,000원 아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 실험 결과를 농업기술집단지 '멜론' 편에 실는 한편, 6월에 현장 평가회를 통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충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수경재배 맞춤형 기술을 통해 품질과 생산량은 높이고 노동력은 아껴 경영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수경재배는 정보통신기술(ICT) 농업 구축에도 꼭 필요한 관리 방법인 만큼 앞으로 친환경적인 순환식 수경재배에 대한 연구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수경재배 기술을 적용시킨 멜론.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한 식품 꾸러미 지원사업.

'올해도 농어촌과 상생협력'

LX,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억원 출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작년과 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이어간다.

LX는 16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하면서 그간의 농어촌상생 추진실적과 함께 올해의 세부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문화와 교육, 경제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적 지원은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인적 봉사가 수반되는 활동은 하반기로 연기해 진행한다.

LX는 지난 2년 동안 2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문화상생의 일환으로 전북 농어촌 의료서비스 소외지역 4곳을 선정해 '한방 의료봉사'를 이어왔다. 이 행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2018년에 선정한 농어촌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추천된 바 있다.

또한, 교육상생부문의 '전북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6개 군 52개 지역

아동센터 1,500여명의 아동들 상대로 각종 기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경제상생 프로그램인 '식품 꾸러미' 사업은 도내 독거노인과 차 상위계층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선물을 전달했다.

LX는 올해에도 1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한방의료 봉사와 식품꾸러미 전달을 계획 중이다.

최창학 사장은 "이번기금출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농어촌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는 지난 2017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협약'을 맺고 전북도 농어촌지역에 매년 1억 원을 출연해 농어촌 상생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국민의 시각에서 경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금년 말까지 활동하는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등 공사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신규과제 발굴 등 공사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공사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외부자문위원 10명이다. 지원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www.sdco.or.kr) 해당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3일까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새만금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의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했다. /김윤상 기자

하림 삼계탕 온라인 판매 급상승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의 대표제품인 삼계탕이 집에서 건강식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온라인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16일 (주)하림이 분석한 삼계탕 온라인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판매실적이 7,100만원으로 전년 동월 2,600만원에 비해 270%로 3배 가까이 오른 실적을 보였다.

이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를 차리기 위해 간편식 제품인 삼계탕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식대신 가정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가 큰 폭으로 커졌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건강관련 이슈들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을 통해 건강을 챙기려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대표 보양식 가운데 하나인 삼계탕이 여름철 특수 계절에 상관없이 인기를 받고 있다. /익산=정원형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 특별보증업무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신보와 협약 체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16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대출'에 대한 보증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은 심사 및 현장실사를 제외한 신청서류 안내, 보증약정체결, 보증료 수납 등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북본부는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해

도내 전 영업점 여신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세부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화상교육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피해업체 전용상담창구', '신속여신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243건, 80여원의 코로나19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소모가 되었으나 금차협약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은, 기준금리 0.75%로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되자 금리인하 신중론을 고수하던 한은이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했다.

한은은 16일 오후 4시30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같이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이다. /뉴시스

지난해 전북 인구 1만3000명 ↓

전입 22만9000명

전출 24만2000명

2011년 이후 감소세

작년에 전북인구가 1만3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통계로 본 2019 호남·제주 국내인구이동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전입 인구는 22만9000명, 전출 인구는 24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전북도 인구 1만3,000명(-0.7%)이 감소한 것으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순유출을 보인 호남

지방 시·도중 는 가장 큰 수치다. 전북의 인구는 201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 이동은 모든 지역에서 10대와 20대가 순유출 된 가운데, 전북의 10대(-0.7%)와 20(-4.5%)대 순유출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입지와 전출지 1순위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34.0%)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순유입률은 광주 동구(4.61%)가 가장 높고, 순유출률은 임실군(-3.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